



재무제표로 보는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물류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은? 한진, 대한통운, 현대택배, 범한 등등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거론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물류를 대표한다고 하기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표명한바 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페덱스, DHL, UPS와 같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럼, 국제적기업인 페덱스, DHL과 같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양한 의견이 물류전문가로부터 제시되고 있으며, 추진중에 있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물류기업을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 될 업체는 어떤 업체일까?

이에 본지는 최근 12월 결산법인 기업 중 물류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페덱스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분석해 보았다.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을 재무제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소 억지가 있지만 외형적 규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거론된 40여개 기업들은 물류관련업체중 지명도가 다소 있는 기업이지만, 이들 기업이 물류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여기에서 제외된 우수한 물류기업도 많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대한민국 정부가 종합 물류업 인증제도를 만들면서 표본으로 삼았던 페덱스, DHL, UPS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

대표적으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페덱스의 2004년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페덱스 그룹의 2004년 매출액은 173억 8300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17조 383억원, 영업이익도 6280억원이나 된다. <표1>

먼저, FedEx Corp의 2005년 3사분기(2004년 12월-2005년 2월) 매출액은 73억 4000만달러(전년대비

21% 성장, 전년: 60억 6000만달러), 영업이익의 5억 5200만달러(전년대비 48%성장, 전년: 3억 7200만달러), 영업이익의 7.5% (전년대비 1.4% 성장, 전년: 6.1%), 순수익 3억 1700만 달러 (전년대비 53%성장, 전년: 2억 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3사분기 매출은 2004년 2월에 FedEx에 인수된 FedEx Kinko's(FedEx 키크코스)가 기록한 4억 99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이다. FedEx Kinko's의 매출은 지난해의 약 1억 달러 매출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된 수치이다.

그럼, FedEx Corporation의 자회사인 FedEx Express의 3사분기 주요 실적을 살펴보자.

○ 기획- 대한민국 대표물류기업은 !!

[표1] 2004년 FedEx 매출액

FedEx Corporation	2004년	2004년 Q3	2004년 Q4	2005년 Q1	2005년 Q2
매출	24,710	6,062	7,041	6,975	7,334
영업이익	1,440	372	685	579	600
순이익	838	207	412	330	354
FedEx Express					
매출	17,383	4,347	4,710	4,585	4,803
영업이익	628	223	407	303	327

(*단위: millions USD, 5월 결산법인)

- 매출액 - 49억2000만달러
- 영업이익 - 3억4000만 달러
- 영업이익률 - 6.9%

FedEx의 주요서비스인 국제 특송화물(IP) 부문매출은 3사분기동안 19%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IP 하루 평균 패키지수는 11% 성장했으며, 이는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의 빠른 성장과 미국의 수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패키지당 IP매출성장은 9%로, 이는 연료 할증금과 패키지당 평균 무게의 증가와 환율차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내 특송화물 매출은 9% 증가하였으며, 하루평균 물동량은 6% 증가하였다. 또한 연료할증금 매출 상승과 패키지당 평균 무게, 파운드당 평균 요금 증가로 패키지당 미국 내 특송화물 매출성장은 5퍼센트로 상승하였다.

FedEx의 앨런 그라프(Alan B. Graf, Jr) 수석 부사장 및 재무책임자(CFO)는 "FedEx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 설비, 기술 등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FedEx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향후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즉, 고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점이 글로벌 물류기업의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요물류기업들에 대한 2004년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자.

매출액 규모로 1위는 어느 기업일까?

페덱스의 17조원보다는 많이 뒤지지만 7조2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한항공이 단일 물류기업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한진해운이 6조

2000억원, 현대상선이 5조118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2위, 3위를 차지했다.

항공기업만을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각각 1위와 4위를 기록하였으나 페덱스에 비하면 많이 뒤쳐지는 실적이라 할 수 있다. 두 항공사는 여객수송부문까지 포함하지만 페덱스는 화물수송이 전문인 점을 감안하면 많이 뒤쳐진다.

해운기업에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PL전문기업의 랭킹을 보면 대한통운이 1조1193억원의 매출액으로 1위를 기록하였지만, 전체 조사기업들 중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범한종합물류, 글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한진, 현대택배, CJ-GLS, 세방기업, 동방 기업의 순이다.

이들 기업은 20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업체로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특히,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 물량만 취급하여 매출액 7000억원을 기록, 업계 8위를 차지했다.

LG그룹이 해외로 수출입 하는 물동량은 6위를 기록한 범한종합물류가 취급하며, 국내물량은 20위를 기록한 승산이 나누어 다루고 있다.

택배업계의 현대택배와 CJ-GLS는 업계 3위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지만, 매출액에서 CJ-GLS보다 약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현대택배가 3위를 차지했다.

CJ-GLS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본 사가와 익스프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올해부터 영업에 들어갔지만, 현대택배의 경우는 2002년부터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경쟁기업보다 한걸음 앞서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IT관련 기업으로는 매출액 2237억원으로 한솔 CSN(14위), 965억원의 CJ-시스템즈(18위), 624억원의 다국적 기업인 SAP코리아(26위), 182억원의 한국물류정보통신(36위)의 순이다. IT관련 기업은 한국물류정보통신을 제외하고는 물류사업부분이 100%라 할 수 없지만, 물류관련시스템 판매부분의 매출 비중이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포워팅 업체를 보면 1185억원의 단자스 에어엔오션(16위), 엑스로지스코리아(19위), 백스글로벌(21위), 대승항운(33위) 등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다.

• (주)글로벌비스

현대차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주)글로벌비스는 작년부 터 국내와 유럽·중국·미국을 잇는 글로벌 물류망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한국물류산업을 이끌어갈 우 량기업으로 성장하는 유망기업이다. 2003년 매출액 이 5787억원에서 2004년엔 9027억원으로 55.9% 늘어나는 등 현대차 그룹의 물류업무를 전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03년 미국 앨라배마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유럽 슬로바키아에 현지법인을 최근 설립하고 올 해 안에 서유럽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 다. 또 중국에도 진출, 베이징(北京)과 장쑤(江蘇)성 등 2곳에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비스는 주로 자동차 운반과 철강재 수송 등 계 열사의 국내외 물류업무를 중심으로 기업규모를 키 운 다음, 외부 기업의 물류 업무도 맡아 전문 물류회 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 (주)한진

(주)한진의 작년 매출액은 6,617억원이다. 매출 총 이익은 620억원, 당기순이익 156억원으로 표본 기 업중 매출액 부분 9위, 당기순이익 10위를 차지했다.

택배사업을 시작한지 13년만에 배송물량이 60배가 량 증가했다. 한진은 지난 1992년 택배사업을 개시

한해에 88만 박스를 배송 했으나 올해는 5000~6000만 박 스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택배사 업부 물량 중 60%를 차지하는 GS 홈쇼핑이 지난 해 중반부터 결별 한다는 루머가 다시 나돌기 시작했다. 서비스 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기업인 KT는 한진과 3PL 재계약을 최근 체결했는데, 비용보다 서비스 측면을 더욱 중시했기 때문이다. 가격은 비싸지만 국내 최대의 육해공 물 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통합물류서비스(Integrated Logistics Service)를 제공, 최상의 물류품질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진은 타 업체보다 가격도 비싼 만큼 서비스도 최 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복합물류

2005년 가장 주목받을 물류기업중의 기업이다. 매 출액 676억원으로 24위이지만 당기순이익은 84억 원으로 14위를 차지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 지출보 다 수익이 많은 기업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모 기업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21세기 종합물류기업 으로 탈바꿈하면서 그 핵심에 한국복합물류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 계열 편입과 함께 3PL 등 종합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3년간 수 백억원의 IT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의 효율적인 경영지원과 사업확장, 고객서비스를 위 해 대대적인 IT투자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거점(군 포, 경남 양산, 전남 장성)의 다양한 업종의 화주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창고 임대에서 종합물류 서

○ 기획- 대한민국 대표물류기업은 !!

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군포, 양산, 전남 장성의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 화물 기지가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5대 거점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익구조는 대부분이 임대사업관련 매출이지만 본격적인 3PL 시장에 뛰어들어 2년안에 철송, 보세, 3PL 등의 사업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편입으로 제조업, 육상 및 항공운송, IT 등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물류인프라 역량을 한국복합물류로 통합하여 물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M&A를 통한 3자물류 도약의 발판 마련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 한익스프레스

최근 중공업 사업부문을 분리, 단기적으로 매출 신장률 둔화나 장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특수화물 운송에 필요한 물류기지를 평택 또는 울산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수화물 운송전문업체라는 이미지에서 글로벌 3PL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CI작업과 함께 핵심역량을 물류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분야는 카고화물을 포함하여 위험물, 유류, 냉동/냉장화물, 화공품 등 특수화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앞으로는 포워딩 사업, 보세화물을 포함한 일반화물의 보관창고사업, 물류대행업, 물류컨설팅, 물류 IT관련 사업 등으로 영역을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통물류, 판매물류 영역까지 확대하고 부품조달물류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중국의 상하이동국제화운 유한공사라는 포워딩 업체와



업무 제휴로 중국진출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회사 내부적으로 물류컨설팅 능력향상과 물류 IT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특수화물 운송전문업체에서 산업자재 공동물류 등을 포함한 전문 3PL업체를 지향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콜롬버스와 통합할 경우 3PL 순수 운송업체로서는 1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표본 조사된 40개 일부 기업들을 그룹형태로 묶어보면 외형상으로나마 페덱스를 앞지르는 17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나온다.

먼저, 한진그룹군이다. 7조2000억원의 대한항공, 6조2021억원의 한진해운, 6617억원의 한진 등 이들 3개 기업을 통합하면 전세계 육해공의 물류를 다루는 14조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종합물류기업이 탄생한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두 번째는 대주주가 다르기는 하지만 5조1186억원의 현대상선, 9027억원의 글로벌비스, 4292억원의 현대택배의 현대그룹군이다. 6조4505억원의 매출규모다.

세 번째는 GS그룹과 분리하기 전인 LG그룹군이다. 9414억원의 범한종합물류, 867억원의 승산, 221억원의 범한상선 등으로 구성된 2조원 규모의 LG그룹군이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군과 쌍두마차로 한국물류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대 이슈기업군은 금호아시아나 그룹군이다. 2조9921억원의 아시아나 항공, 676억원의 한국복합물류로 두개기업이 3조원의 매출규모를 현재 보이고 있지만,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1조1193억원의 대한통운 인수위사를 표명한 바 있어 이를 인수할 경우 4조원의 매출규모를 가지는 거대 종합물류기업으로 탄생한다.

또한 여기에는 제외되었지만 금호고속 운수사업군이 포함되면 더욱 힘을 신게 된다. **물류**

<김광용 기자>

【 재무제표로 보는 물류업체 순위 】

과 목 물류업체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순위	당기순이익 순위
페덱스	17,383,000,000,000	628,000,000,000				
대한항공	7,210,859,204,373	384,032,809,694	676,946,516,897	486,684,878,897	1	2
한진해운	6,202,120,462,288	819,824,859,087	896,009,115,262	645,704,303,718	2	1
현대상선	5,118,612,119,760	554,823,975,175	620,826,573,215	427,869,212,496	3	3
아시아나항공	2,992,119,457,215	142,274,000,946	280,065,109,288	268,076,169,670	4	4
STX팬오션(주)	2,586,253,377,655	341,573,881,682	319,618,415,534	211,443,472,580	5	5
대한통운	1,119,329,060,253	60,903,638,736	61,183,982,805	18,857,426,705	6	8
범한종합물류	941,498,116,100	14,181,182,760	26,368,350,646	21,971,646,734	7	7
글로벌비스	902,750,207,893	49,020,797,873	98,400,616,071	69,649,617,160	8	6
삼성전자로지텍	700,000,587,126	5,896,516,222	7,219,052,747	5,424,102,435	9	19
(주)한진	661,753,310,871	32,006,316,243	21,903,286,367	15,625,869,828	10	11
현대택배	429,213,651,890	12,935,703,881	10,466,369,554	7,349,257,306	11	18
씨제이 지엘에스	378,601,767,586	10,125,541,968	14,866,026,517	11,223,257,825	12	12
세방기업	367,912,472,665	27,752,655,594	21,560,902,801	16,058,305,001	13	10
동방	266,082,750,540	15,362,946,858	12,519,918,902	7,475,177,706	14	17
한솔CSN	223,714,458,521	7,195,777,625	6,528,462,788	8,414,244,210	15	16
KCTC	126,634,494,839	3,262,313,687	3,848,191,261	3,793,578,763	16	23
단자스에어엔오션	118,566,376,065	3,336,774,944	2,810,258,437	1,859,762,931	17	30
한익스프레스	112,974,502,294	3,943,214,316	4,932,258,237	3,474,504,987	18	25
씨제이스스템즈	96,516,672,887	4,708,850,751	4,893,669,412	3,466,200,241	19	26
엑셀로지스틱코리아	90,540,402,396	5,549,915,618	5,474,985,639	3,795,022,175	20	22
승산	86,756,152,188	7,034,698,763	25,011,496,986	18,310,265,323	21	9
백스글로벌	83,357,405,931	343,548,733	1,181,640,083	749,446,873	22	36
에치티에치	79,162,052,097	5,332,166,033	4,927,020,090	4,927,020,090	23	20
한국파렛트풀	70,739,969,887	11,443,422,071	8,770,481,544	8,770,481,544	24	14
한국복합물류	67,661,651,936	24,565,302,845	12,117,993,347	8,441,227,729	25	15
로젠택배	66,289,409,240	1,964,512,846	1,555,404,291	1,164,515,661	26	31
SAP코리아	62,418,792,750	669,899,571	3,994,951,435	3,994,951,435	27	21
레스코	57,162,923,360	1,618,973,633	1,176,941,395	1,118,641,621	28	32
폴름버스	46,614,047,429	519,501,865	9,882,785,868	9,882,785,868	29	13
용마유통	39,290,388,336	2,942,166,730	3,462,806,891	2,535,562,951	30	27
오뚜기물류서비스	38,571,755,150	3,090,493,573	3,055,583,965	2,160,274,023	31	29
한국통운	36,870,008,193	1,358,641,440	640,323,124	455,091,319	32	38
아신	27,277,987,855	313,019,028	525,248,780	583,357,705	33	37
대송항운	25,249,025,230	711,445,433	152,655,446	152,655,446	34	41
코리아코프	20,125,849,468	775,136,120	313,326,347	233,690,267	35	40
한국물류정보통신	18,264,070,042	1,184,856,467	1,550,388,611	1,042,872,552	36	34
폴드라인	18,095,994,739	384,240,348	589,185,343	394,859,625	37	39
한국컨테이너풀	16,814,770,693	1,659,528,427	803,295,301	773,203,742	38	35
에버그린코리아	7,478,839,157	3,844,536,519	3,418,339,938	2,410,509,196	39	28
양지물류	2,999,108,979	1,444,482,195	1,204,143,330	1,060,777,655	40	33
DHL코리아		5,042,446,670	5,223,799,017	3,542,428,379	*	24

<*단위: 원 *자료제공: 금융감독원>